



소개

##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

디자인, 장인 정신, 기술적 독창성의 만남: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중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

### 주요 특징:

- **밀라노 디자인 위크 단독 전시:** 6 개의 챕터를 통해 90 년의 역사를 아우르며, 디자인 중심의 아카이브 타임피스 53 점, 애틀모스 클락 32 점, 그리고 마크 뉴슨의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 **마크 뉴슨과의 독창적인 협업:** 2008 년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 가며, 시간과 디자인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 **최첨단 신제품:** 마크 뉴슨의 세 가지 새로운 디자인과 메종의 장식 공예가 돋보이는 애틀모스 작품 두 가지를 포함한 총 5 점의 새로운 클락을 공개합니다.

오는 4 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를 선보이며, 매일 삶의 속도를 측정하는 타임키퍼 오브제를 통해 디자인과 일상생활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타임키퍼 방식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며, 독보적인 애틀모스 클락을 중심으로 5 점의 신제품과 메종의 유산을 담은 워치메이킹 오브제를 소개합니다. 2008 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 전시에서는 특별한 신제품을 공개하고 워치메이킹을 넘어 대표적인 디자인 오브제로 확장된 뉴슨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밀라노 역사 지구의 빌라 모차르트에서 개최됩니다.



## 시간의 예술, 경계를 넘어

---

예거 르쿨트르에서 워치메이킹의 예술은 손목 위를 넘어 확장됩니다. 메종은 1833 년부터 정교한 워치메이킹 칼리버를 정복하며 유산을 구축해 왔습니다. 20 세기에 들어서 사회, 기술, 디자인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예거 르쿨트르는 창의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해 애틀모스를 비롯한 다양한 타임키퍼 오브제에 그 전문성을 적용했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현대적 디자인 가치를 구현한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는 기술적 독창성과 디자인, 장인 정신의 놀라운 만남을 기념합니다. 주요 전시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 컬렉션의 여행용, 가정용, 탁상용으로 제작된 디자인 중심 타임키퍼 오브제 53 점과 90 년 이상의 역사를 아우르는 애틀모스 클락 32 점을 포함한 전례 없는 타임피스
- 새로운 5 점의 클락 공개: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두 가지 애틀모스 클락(애틀모스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텔루리움, 애틀모스 디자이너 칼리버 568) 및 새로운 트래블 클락(메모박스 트래블 클락)과 더불어 진귀한 수공예 장식 기술로 완성된 두 가지 애틀모스 클락(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
- 애틀모스 메커니즘의 신비로운 영구 운동을 보여주는 현장 시연 진행
- 마크 뉴슨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의자, 테이블 등 대표 작품 전시

## 6 개 챕터로 펼쳐지는 이야기

---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는 애틀모스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타임키퍼 오브제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적 독창성을 이어온 예거 르쿨트르의 유산을 조명합니다.

### 챕터 1: 애틀모스의 이야기

영구 운동에 대한 꿈은 수 세기 동안 인류를 매료시켜 왔으며, 이는 시간과 에너지, 자율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드러냅니다. 오랜 탐구는 1928 년 스위스의 방사선 엔지니어 장 레옹



휘테가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틀어 영구 운동에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 클락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애틀모스 0 으로 알려진 이 시계는 와인딩하거나 기존의 에너지원 없이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전례 없는 시계의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초기에 판매된 버전은 기술적 한계를 보였지만, 가능성은 분명했습니다. 자크-다비드 르쿨트르는 이 메커니즘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위치메이킹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애틀모스 0 의 잠재력을 본 그는 휘테에게 르쿨트르 & 씨(LeCoultre & Cie)에 합류를 제안했고, 그렇게 선구적인 발명과 하이 위치메이킹 전문 기술을 결합한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다듬고 신뢰성을 높인 열정적인 협업의 결실로 1932 년 애틀모스 I 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델은 주변 온도가 변하는 한 최소한의 외부 개입만으로도 작동을 이어가며, 겉보기에도 영구적인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938 년까지 초기 애틀모스 모델은 수은으로 구동되는 모터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열 팽창과 수축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구조였지만, 수은의 특성상 운송이 어렵고 안정성에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르쿨트르는 수은 대신 염화에틸 가스를 채운 캡슐을 사용하고 생산을 중앙화했으며, 애틀모스 I 과 II 에 사용된 칼리버 30A 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오직 주변 온도의 미세한 변화만으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단 1°C 의 온도 변화로 약 48 시간의 자율성을 확보해,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도 클락이 무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외교 선물로 채택되어 '대통령의 시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애틀모스 클래식은 이 전통을 계승하며, 우아한 디자인과 정밀한 기술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챕터 2: 애틀모스를 완성하는 메티에 라르 ™

정교한 메커니즘과 매혹적으로 느리게 진동하는 고리 모양 밸런스 휠을 갖춘 애틀모스 클락은 단순한 시간 측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아르데코 기원의 절제된 미학에 뿌리를 두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예술적 표현을 위한 하나의 캔버스로 기능해왔습니다.



주로 글라스 돔이나 크리스털 케이스 안에 자리 잡은 애트모스 무브먼트의 구조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만큼이나 강력한 시각적 정체성으로 높이 평가되며, 핵심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을 수용합니다. 197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애트모스가 등장했던 초기 1930년대를 특징지었던 미학적 실험 정신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장식 공예 장인들과 협업을 거치면서 애트모스 클락은 예술 작품의 경지에 올랐으며, 저명한 현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스타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 챕터 3: 애트모스의 컴플리케이션

애트모스의 작동 방식은 마치 마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한계를 지닙니다. 이 메커니즘이 생성하는 에너지가 극히 적어 추가 기능을 구동할 충분한 동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와트 백열 전구 하나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애트모스 클락 6천만 개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방문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에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이 새롭게 개발한 칼리버 54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에너지 소비를 미미하게 증가시키면서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시간 측정의 기원이 되는 천문 현상, 즉 달의 위상과 계절과 같이 길고 느린 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애트모스에 이상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 여겨 1990년대 말 최초의 문페이즈 애트모스를 개발했습니다. 2022년,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지금까지 제작된 애트모스 중 가장 복잡한 애트모스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590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지구, 태양, 달의 실제 주기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3차원 기계 장치로,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된 텔루리움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애트모스 텔루리움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 챕터 4: 워치메이킹 오브제, 클락

1920년대에는 개인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시계는 소수 특권층만이 누리는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예거 르쿨트르는 일상과 업무 환경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오브제를 활용해 클락을 재해석했습니다. 탁상용 액세서리, 램프, 건축물 미니어처가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종은 유용한 일상의 아이템에 시간 측정 기능을 더해 실용성과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상상력 넘치는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 기술을 통해 평범한 물건을



특별한 존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독립된 오브제로서 시선을 사로잡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고안되어, 때로는 예상 밖의 형태나 유쾌한 레퍼런스를 더해 세련미와 놀라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거나, 양면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이 오브제들은 시간과의 관계를 보다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챕터 5: 여행용 오브제, 클락

20 세기에 들어서며 현대인의 삶에서 이동성이 점점 중요해지자 예거 르쿨트르는 어디를 여행하든 늘 함께할 수 있는 휴대용 클락을 선보였습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우아한 디자인, 창의성을 결합한 메종의 여행용 타임피스 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교한 디자인으로, 때로는 기압계나 온도계 같은 기능을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1930 년대부터 여행용 클락은 이러한 이동성의 비전을 구현했습니다. 거울, 가죽 케이스, 접이식 테이블 클락 등 다양하게 제작된 이 제품들은 정밀한 기계적 성능과 이동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디자인을 결합했습니다.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밀함, 기술 발전, 기계적 신뢰성, 그리고 우아한 기능에 매료되었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1950 년 메모박스 기계식 알람 시계의 등장으로 시간은 단순히 화면에 표시되는 수동적 요소가 아닌 능동적인 알림 신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시계, 탁상용 클락, 여행용 오브제 등으로 확장되어 시간이 알리고, 안내하며,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챕터 6: 디자인 오브제, 클락

1920 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탄생했고, 이는 건축과 그래픽 분야부터 운송 수단, 가정용품,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락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현대적인 정신을 받아들여 형태와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클락은 유쾌하고 놀랍거나 때로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도구이자 스타일을 표현하는 오브제가 되었습니다. 아르데코 테이블 클락부터 1960 년대의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구성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오브제는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과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기계적 정밀성은 여전히 핵심 요소로 남아 있지만, 해석, 형태, 소재와 스타일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핸즈는 중심에서 벗어나고, 다이얼은 회전하며, 비율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과감한 변형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대화를 유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간을 읽는 경험 자체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 **특별한 신제품: 마크 뉴슨의 세 가지 디자인과 두 가지 특별한 애틀모스 타임피스**

---

**마크 뉴슨과의 독창적인 협업:** 예거 르쿨트르와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은 2008 년부터 협업을 이어오며, 전문 기술과 창의적 에너지를 결합해 애틀모스 클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마크 뉴슨이 '복잡하고 마법 같은 오브제'라고 묘사한 애틀모스 클락은 2008 년 칼리버 561, 2010 년 칼리버 566, 2016 년 칼리버 568 의 첫 번째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가구부터 여행용 가방, 서핑 보드, 슈퍼요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마크 뉴슨은 오랫동안 타임피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0 대 초반 애틀모스 클락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시계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퍼펙추얼 타임키퍼'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마크 뉴슨의 세 가지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그의 대표 가구 작품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 가지 디자인은 애틀모스 텔루리움의 새로운 버전, 2016 년에 디자인한 애틀모스 칼리버 568 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메종의 상징적인 메모박스 알람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트레이블 클락으로 구성됩니다.

**장인 정신에 바치는 찬사:** 전통 장식 공예 기법의 보존과 계승은 예거 르쿨트르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입니다. 이러한 공예는 19 세기까지 널리 활용되었지만, 20 세기 이후 취향의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하이 워치메이킹 메종으로서 이러한 공예 기법을 육성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체적인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메종 중 하나로서 다양한 타임피스에 새로운 방식으로 공예 기법을 적용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식 공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애틀모스 모델 2 점이 공개됩니다. 하나는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을 선보이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목재 상감 세공 기법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입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단독 전시:**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는 시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애틀모스와 다양한 워치메이킹 오브제는 과학적 원리, 기능적 역할, 그리고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며, 디자인과 기계공학, 그리고 창의성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해왔는지 보여줍니다. 그 안에 지속성과 사유, 그리고 일상과 깊이 연결된 시간에 대한 비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퍼페추얼 타임키퍼'는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밀라노 빌라 모차르트(Via Mozart 9, 20122 Milan)에서 개최되며,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 30 분까지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https://bit.ly/ThePerpetualTimekeeper> 에서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마크 뉴슨 소개

마크 뉴슨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술과 조각이 어우러지는 지점, 즉 정밀함이 움직임을 만나고 기능이 형태가 되는 지점에서 오브제를 창조해냅니다. 그의 작품은 유려한 라인, 정교한 소재,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이 특징입니다. 마크 뉴슨은 과감한 단순함과 첨단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항공, 자동차, 기술, 럭셔리 분야의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혁신과 장인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예거 르쿨트르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뉴슨은 애틀모스와 메모박스 같은 아이콘들을 재해석하면서 기존의 것을 덮어쓰기보다는 그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한 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 기억과 창조 사이를 잇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크 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은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호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예거 르쿨트르를 깊이 동경해 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하고 일관된 디자인 유산을 이어가며,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평생 타임피스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예거 르쿨트르와 여러 차례 협업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2008 년부터 애틀모스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작업은 메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

## 에트모스 소개

1928 년에 탄생한 에트모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여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입니다. 에트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온도의 변화로 인해 구동됩니다. 섭씨 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성능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에트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트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라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특별한 에트모스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